



▲ 이 희 송 현장소장

마음이 따듯한 현장 ! 안전한 현장 ! 영등포 SK LEADERS' VIEW

- SK건설 영등포 SK LEADERS' VIEW 신축공사 현장 -

어제는 태양 열기로 도로엔 연신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한여름을 방불케 하더니 오늘은 어제의 열기를 식히기라도 하듯 이른 아침부터 검게 깔린 먹구름 사이로 바람과 빗방울을 쏟아낸다. 자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변화 무상하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건설현장의 환경도 계속 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화에 맞서 무재해 준공을 향하는 곳이 있다. SK건설 영등포 SK LEADERS' VIEW 신축공사 현장(이희송 현장소장)이 그곳이다.

40층 건물높이로 고층부는 RC조, 근생시설은 SRC조로 설계하고, 지하연속벽, ACS(Auto Climbing System), System Support, AL-Form, CPB 등 다양한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특히, 세계적으로 작업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ACS공법으로 현장에서 근원적인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하고 행동하는 안전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안전! 근로자와 함께 행동하는 안전!

바로 참여와 행동하는 안전이 이곳 현장의 슬로건이다.

첫번째 참여하는 안전에서는 Execution Plan을 기반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한다. 사전 안전시공관리계획서인 이 계획서는 여타 다른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계획서와는 다르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계획서는 승인되지 못한다」는 이곳 현장의 지침이 다른 곳과 다르게 하는 부분이다. 현장에 맞는 계획서로 거듭나기 위



해 평균 3~4번의 수정은 기본이며, 현실에 적합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승인된다. 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주 협력업체 소장은 작업단위별 위험작업내용, 작업시 사용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공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서는 공사부서와 안전관리부를 거쳐 최종 이희송 소장이 승인하고, 매 작업내용은 협력업체 소장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두번째 행동하는 안전은 건설현장에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된 재해가 90%를 육박함을 볼 때 중요한 안전이다. 이를 위한 활동 중 근로자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최대한 많은 근로자를 안전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이다. 이희송 소장도 안전은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아울러 행동하는 안전이 필요하다고, 행동 안전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이 곳 현장은 어느 한 곳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다.

감성관리, 근로자가 편해야 안전하다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감성관리의 목적이다.

감성관리의 일환으로 취침용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등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여 제공하고, 자판기 식수대 등을 갖춘 야외 카페 수준의 휴게실은 곧 설치한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감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반기에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림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작품을 현장에

게시함으로써 안전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감성관리에 대해 이희송 소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정말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현장이 따뜻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근접관리로 무재해 준공 이룩

모든 현장의 목표가 다 그러하듯, 여기 현장도 무재해 준공을 간절히 바란다. 슬로건을 내걸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과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이행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곳 사람들...

정규환 안전부장이 말하는 근접관리도 그 중 하나다.


안전관리자 이외에 현장의 안전을 전담 수행하는 안전지킴이인 “Watch - Man”은 근로자와 밀착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현재 5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앞으로 15명까지 증원, 근로자와의 거리를 더욱 밀착시켜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무재해 준공을 이끌기 위해 화려한 계획보다 근로자와 밀착한 관리로 최선을 다할 때 무재해 준공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고 이곳 현장 사람들은 믿고, 지금도 현장을 나선다.

준공 그날까지...

「기업 입장에서 안전은 공정, 원가, 품질 모두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의 존속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이다」라는 것이 이희송 소장의 지론이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에서 이희송 소장의 말은 피부에 와 닿는다.

근로자 자신이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족을 아끼는 마음만큼 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러한 마음은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다. 

〈최종덕 기자〉

